

WTO는 휴가中, 그러나 몰아치는 협상 타결론



WTO/DDA 협상에서 각료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회의가 바로 일반이사회이다. 이런 중요한 일반이사회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됐다.

한농연은 이에 대응해 손재범 정책실장을 파견해 협상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협상단 대표부와 조태열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알려내는 한편, 협상에서 관세상한선 설정저지·관세감축 최소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철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참가한 농민연맹이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이번회의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세부원칙에 대한 1차 초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그리고 WTO는 8월말까지 휴가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의 끝 무렵 미국이 휴가가 끝난 시점부터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상황을 미뤄볼 때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다르게 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일반이사회 일정별 협상내용

□ 7월 27일

- G10회의 : TNC 회의 중간에 필요시 공동 대응 방안 협의
- WTO일반이사회 : 농업협상 관련 내용 미논의
- 한·일 농림부 고위급 협의 : 관세상한 도입 저지, 관세감축 공식 및 민감품목 신축성 반영 대안 모색, G10 중 한국, 일본, 대만 협력 강화 추진

□ 7월 28일

- 무역협상위원회 : 팀 그로서 농업협상 의장, 평가보고서 제출
 - 협상 교착상태이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진전 가능
 - 시장접근 분야, 협상진전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
 - 국내보조 분야, AMS 최대 사용 3개국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
- 주요국 발언요지
 - 미국 : 높은 수준의 목표 강조, 시장접근 분야 협상 진전 필요성 강조
 - EU : 협상 미진전에 실망감 표명

- 스위스 : 관세상한 반대, 각국 다양한 현실 반영 필요성 주장
- 한국 : 관세상한 반대,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 신축성 강조
- 인도 : G20제안서가 현실적·실용적 제안임을 강조

□ 7월 29일

- WTO일반이사회
 - Portman 미 무역대표(USTR), 미 의회에서 CAFTA 비준동의 통과 소개, 향후 DDA 협상 적극 기여 의지 표명
 - Grocser 농업협상 의장 후임으로 Crawford Falconer 뉴질랜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선출
 - Pascal Lamy 차기 WTO 사무총장 상견례
 - 다수 개도국들, 개도국 우대 중요성 강조
- G10 각료급 오찬 및 기자회견
 -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등 장관급(또는 차관보급) 참석
 - 관세상한 도입 저지,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에 신축성 확보 등 G10 공조 강화

2. 향후 협상전망

8월 휴가 보낸 후 협상 급박하고 강력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사무총장과 농업위원회 의장이 교체되어 정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협상일정을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CAFTA를 국회에서 비준(127:125)을 끝냄에 따라 DDA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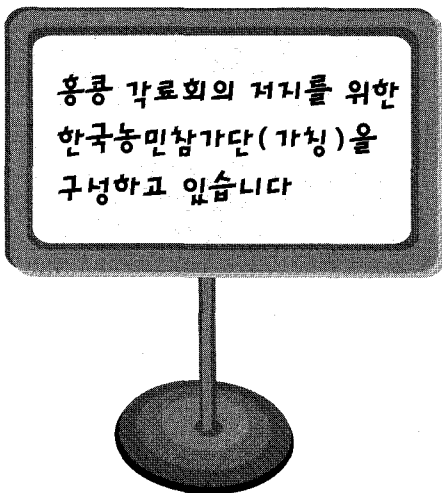
현재 협상의 쟁점은 미국이 EU의 요구 대로 자국의 면화 보조금 등 국내보조를 감축할 것인가와, EU

가 미국의 요구 대로 대폭적인 관세감축 등 시장접근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이 두 나라가 서로 양보를 하고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세상한선 설정저지, 관세감축 구간 최대화, 관세감축폭 최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과 G33(개도국 그룹)과의 사안별 공조는 물론이고, EU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EU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참가일정: 2005년 12월 12일~19일(7박 8일)
- 장 소: 홍콩 각료회의장 인근
- 참가단체: 한농연, 전농, 가농, 전여농, 농단협, WTO국민연대
- 주요일정: 한국농민결의대회(12월 13일), 한국농민대회(12월 17일), 이경해열사 분향소 운영 등

☞ 세부계획은 논의중이며, 관련 소식을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